

검찰 "성모욕 없었다"

『富川署 사건』 발표 **暴言·暴行은 인정**

文경장罷免기소유예

權양 誣告도 무혐의 처리

【仁川】申載勳·洪玄根【지산】
性적모유주장사건을 수사해온
仁川지검(검사장 金慶會)은
16일 權仁淑(22세)을 대의류
4 제점 을 수사했던 富川경
찰서 文貴童(39)이 權인
숙, 지산, 文貴童에게 하는
2 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을 밝힌다고 文
경장을 독직폭행혐의로 불구
속 입건한 뒤 기소유예처분했
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文경장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文경장이 조사와 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조사에 열중한 나머지 저지른 우발적 과오이며 ▲10년이상을 지하며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배우고 고인정을 참작한 것 이라고 밝 혔다.

검찰은 文경장과 함께 고소 된 玉鳳煥富川검찰서장 柳梅 珠光明 검찰서수사와장 (당시 富川검찰서수사와장)을 이

말했다.

◆檢察발표 내용

[illegible]

고 조사가 뒤편에 있는 무기로
의 절을 밟아 조사를 안으로
비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바로 옆의 조사를 통해서도 다른
경찰관들이 날씨가 더워 모두
무릎을 꿇어 놓은 채 다른 피의자
를 조사하면서 文鏡堂의 조사
실업을 왔다 갔다 한 사실이 있

수 권익숙의 고사실증 6월
6일 오후 4시 56분 사이
에 文鏡堂이 富川 경찰서 제5
조사실에서 權堂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仁川 소요사건 관련
수배자의 소재를 알아내기
해 아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變호인단, 裁定신청

鎗英來변호사등 權堂變호
인단 9명은 이날 경찰의 발표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고 "서울
고법에 재정(裁定) 신청을 제
기해 사건 진상을 끝까지 밝히
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
들어질 경우 이사건은 검사
공소제기없이 자동기소돼
호인단이 검찰과 연락을만
현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기타 증거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됨.

“再發 없어야 ”

民正대변인 論評

民正黨의 沈明輔대변인은 16일 平壤 政務處에서 사건에 관한 수사당국의 발표와 관련, “법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가한 한수사관의 독죄, 폭행행위 등은 결코 잊을수 없는 유감스러운 일로서 왕정국이 같은 것을 알았을 때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 이라고 논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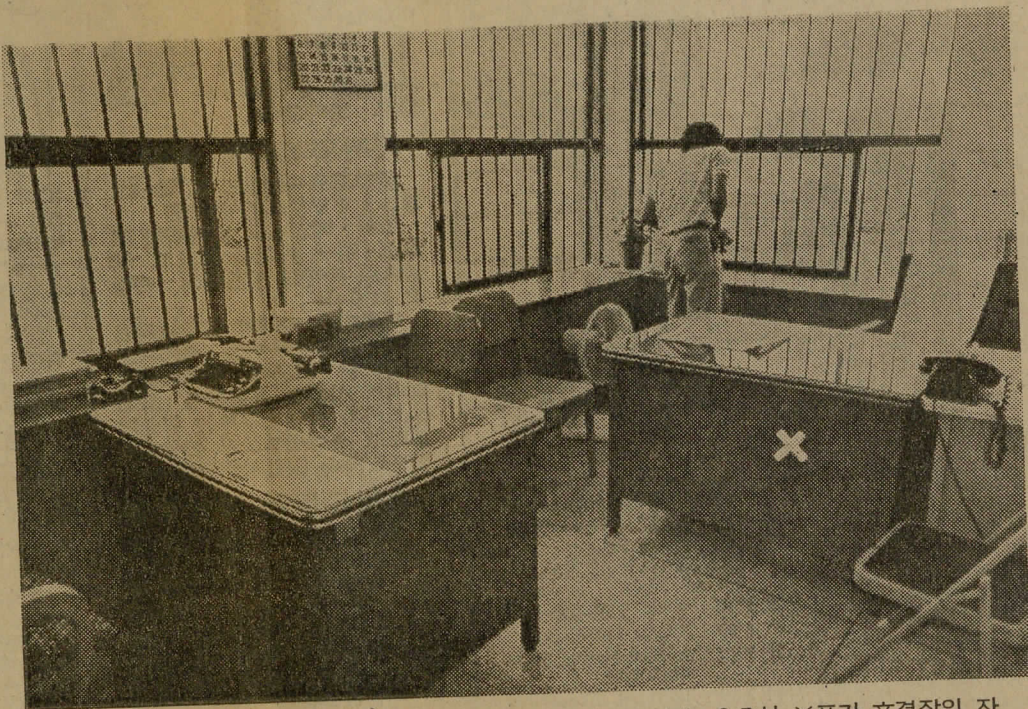
“독자적 調査 ”

내음의 고소장과 7월5일
하의고소로 두고하였다. 내
음의 고소장을 각각 접수하여
7월3일, 7월16일까지 등고소
사실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
해 집중조사를 전개했다.

權양의 고소사
수사결과
실종 6월7일 사
오9시 51시 사
이 文政장이 權양을 조사하면
서 석조 모욕행위를 가했다는
부분이 文政장의 조사를 했으나
호조사실은 어떤면이 우리창도
로 되어 있어 안이 틀려다 보니
었다.

權양과 함께 富川경찰서 유
치청에 수감되어 있던 박모씨
(32여) 박모씨 (30·여) 등
도 참고인 진술에서 조사받
고온 權양의 폭행임을 당했다는
말은 우리청에서 한 말이 있는
나 석조모욕을 당했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
고 열조사실에서 조사를한 경
찰관 김해선, 권오성, 박경전
등도 그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
거나 감지한바 없다고 진술하
는 등의 비추어 사실로 인정하

이 원근하. 어느 사람이 없다고
말하자 權양에게 재킷을 벗게
하후 티셔츠를 입은 가습부만
을 손으로 3~4회 쥐어박
은 權양을 가한 사실과 6월 7일
차오 9시~11시 사이에 文경
자이 富川결찰서 제2 조사실
에서 같은 내용을 조사하던중
權양이 전일과 마찬가지로
속하여 어느 사람이 없다고 말
하자 權양에게 또 다시 가습부
위를 손으로 3~4회 쥐어박
은 權양을 가한 사실을 文경
자이 지백하고 있을뿐 아니라



수사시비발단이 됐던 富川경찰서 조사계 2호실. ×표가 文경장의 지

【富川=愼鍾午기자】

86-7-17



◇權仁淑양



◇파면된 文貴童경장

署長解職방침

치안본부

課長・係長은 16일자로

치안본부는 16일 富川경찰서 權仁澈양 선모유사건과 관련 조사를 담당했던 文寶重경감을 위한 대외원생및 한나라당 재학생의에는 학교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延士生을 전담시켰었다. 延士生을 전담시켰었다. 延士生을 전담시켰었다.

新民黨의 洪恩德대변인이
16일 하오 富川경찰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논평을 발표, "다른 사건엔
서드려나 검찰의 비주어불연
정분의 발표는 신뢰할 수 없다
고 밝히고 "당"로서는 在
법준인과 연대해서 독자적
로 진상 규명 노력을 계속하
다"고 말했다.

“겉옷 벗기고 가슴때려... 단순한 욕설만 했다

金부장검사 일문일답

仁川지검 특별수사부 金壽
長부장검사는 16일 사전전보
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하
기자들의 질문에 응했다.
연경적인 수사는 언제부
터 없는지인.

▼6월초순간계 성교공무장이
구속자가족들을 통해 외부에
알리면서 바로 내사에 착수
했었다. 본격적인 수사는 權
영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난 3
일부터 시작되어로 진행되어
왔다.

사찰수가 다소 늘어났다.
· 사실로 드러난 일부 폭행
· 폭언이 꾸며낸 것이나
權영이 꾸며낸 것이나
▼이 사건은 참판주장이 참
예하게 대립과 있고 특별하
격자가 없다. 배니언권 건
로 소리가 들리고 다른 형사
들이 주위를 왕래하는 조사
에서 추행사실이 있었는지
주행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1. **文政잡자의 진술에** 거지말
 은 없었다.
 ▼한차해만조사했다는 일
 부사실과 다른 진술을했었다.
 그러나 이는 본인의 잘못한점
 이 있어 본능적으로 빠져나가
 려고 꾸며낸것으로 본다. 겁
 착이 일루 증거사실을대며 추
 궁하자 결국 사실대로 자백했
 다.
 1. **文政잡자의 폭언내용은** 구
 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흔히쓰는 단순한 욕설이
 다. 그러나 성조모욕을 주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았다.
 1. **文政잡자 권양의 가솔을**
 쥐어박았다는건 만진것과 어
 떻게 다를가.
 ▼주먹을 쥐고 손톱으로 가
 법게 때린것을 말한다. 이는
 만진것과는 크게 다르고 강제
 추행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성
 전수치실을 일으키게 할 행위
 도 아니었다.
 1. **文政잡자 옷을 벗었다는**
 것은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인가.
 ▼당시 權양이 산바신에만
 모두 5개의 옷을 입고 있었

다. 아마도 여자가 웃을 때 재킷을 2개미를 벗겨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에 어떤 수컷이 때때로 애도 사배할 줄 알고 한 행위를 행하도록 추구까지는 안가고 꼭 행위의 후수된다.

발표대로하면, **권양**의 고소 사실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더 이상 조사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이제까지 수사가 완결되었지만, 헌신대에서 수사는 완전히 종결하고 **권양**이 현재 기소된대로 처벌할 예정이다.

이와 관계하는 언어「이」가 같은 허
위 주장은 일천 수사기관의 위
신설을 실효시키고 정부의 공판
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
서 나온 것이라 함은 「權」의 경
우도 하등한 조차 두 뜻을 벌이
다 성립을 이루는 제정된 바가
출, 위장된 한 전례이므로 마
이 같은 의도가 드러났다」고
판결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변명은 사실과 다르다. 위변명
은 위변명인 고압으로 장악한
수사를 피는 행위를 정당화했
다」고 밝혔다.

延世大 公문폐쇄
延世大는 총학생회와 民
闔가 주최하는 「延世해방대회」
검표지기를 위해 16일 도서관
을 임시 휴관하고 교문을 폐쇄
학생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학교측은 이날 상오 8시 경
무엇에 16일 휴관

지난 31일 오전 10시 30분쯤 朴鍾哲 판고문치사법 측소작사건 제3차공판이 열린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보기드문 광경이 연출되고 있었다.

조금전까지 재판부가 자리했던 法臺는 텅텅이 있는 가운데 발정석에서 격렬한 말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鍾哲이를 살려내라.』 우리 상관이 무슨 죄가 있느냐. 朴鍾哲 판가측 및 民家協회원들과 朴處源 전치안간등 당사들의 재판을 받정하거든 정정판결과의 舌戰이 벌어진 것이다.

고함과 맞고함이 꼬리를 이어 가면서 급기야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 피고인측 방청석쪽으로부터 『발정석을 아 조종해해』



하는 고함이 뒤편에서 일어나왔다. 일순, 朴판가측과 민가협회원들 사이에 서로 어치구니 없다는 반응이 일었다. 이와 혼란을

재판부가 10여분만에 다시 일정한 뒤, 그럼대로 수습했지만, 朴판가측들과 일부 방청석들은 자리를 갈라키고 언변을던듯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의 소용은 朴판의 고문치사법인 趙漢慶 姜鎭圭 두 피고인의 측소작사건의 중언이로 출구, 鄭인들을 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중언대에 앞선 趙피고인이 劉井邦 朴元澤 피고인의 변호인이인 安範洙 변호사의 신변에 위협이다. 朴판사 말소리를 진술하는 말의 의의가, 방청석에서 『내자식을 살려내라』는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그러자 방청석 뒤편에서 『조종해해』라는 고함이 튀어나왔고 이에 『네자식 죽어봐라』며 朴판

방청석의 고함戰

가측들이 맞고함쳤다.

이러 民家協회원들이 朴판가측측에 가세했고 피고인측 방청석들에도 여기저기서 뒤질세라 응수했다. 불시에 벌어진 양측의 「고함戰」으로 재판진행이 어려워져 재판부는 말없이 법정밖으로 빠져나갔다.

우리가 흔히 그러는 형사법정의 모습, 검찰과 변호인측의 날카로운 법률공방전은 창경수 옆의 방청석들의 고함공방전만 연출된 것이다. 비록 외국의 예기치 않나 법정의 신성함과 질서를 예証하는 일화로 이르게 되었다.

몇해전 미국 뉴욕주 시판류스 법정에 미니스카트차림의 한 젊은 여류변호사가 형사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나왔다가 변론도 시작하기 전에 재판장으로 부터 퇴정명령을 받았다.

무릎을 5인치까지 올라가는 그녀의 아슬아슬한 옷차림이 신선한 법정분위기를 해치고 법정의 질서로 유지하는데 지장을 가져올것이라느 판단아래 재판장이 퇴정을 명한 것이다. 결국 이 「미니스카트치비」는 변호사의 상고로 최고법원까지 올라가 「재판장 개인의 주관과 선입견만으로 내린 재판권한」이므로 인정죄사판류스법원의 판정패로 일단락됐지만, 법정을 신성시하는 점에서는 어느나라나 공을 탄다.

오늘날 우리 사법부가 처한 현실과 그리고 이 사건이 갖는 「根柢」적인적격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방청석들간의 공방전으로 일루진 이룰 수 있는 법정에 들어찬 모든 구성원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해 벌어진 것이어서 안타깝기만했다.

〈金昌洙·사후부기자〉

의 자의성을 두는게 바로 **사정(義情)**의 실현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民主)**는 **인민(人民)**의 **의지(意志)**를 실현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민주(民主)**는 **인민(人民)**의 **의지(意志)**를 실현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민주(民主)**는 **인민(人民)**의 **의지(意志)**를 실현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